

Date: 27 Elul 5786 (September 9, 2026)

Torah Portion: Ha'Azinu

Topic: 토라와 테필라 (송축기도)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32 장 1 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아지누의 노래'를 시작하며 '듣는 것'에 호소합니다. 하늘은 "귀를 기울이라"는 부름을 받고, 땅은 "들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닌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토라 전반에 걸쳐 '듣는 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차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예언적 증언을 전하기에 앞서, 토라가 인간의 내면으로 가장 먼저 들어와야 하는 통로인 '귀'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미드라시는 귀에 관한 할라카(신앙의 걸음)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다룹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귀에 통증을 느낀다면, 안식일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슈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생명에 대한 모든 잠재적 위험은 샤발에 일반적인 활동을 금하는 규례보다 우선한다"(요마 8:6). 질환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샤발의 육신의 여느 날과 같이 행동하는 수고를 금하는 규정은 유예됩니다.

그러나 미드라시는 윗 말씀을 통하여, 귀의 질환과 관련된 위험을 고찰한 후, 육체적인 귀로부터 영적인 귀로 심오한 논의를 확장합니다. 현인들은 사람이 귀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에 걸쳐 고통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와의 토라를 향해 귀를 온전히 기울여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55 장 3 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선포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 두 말씀사이의 연관성은 심오합니다. 귀는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귀가 손상을 입었다면 청력이라는 생명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를 필요로 하듯이, 영적인 귀 또한 영혼의 내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토라의 말씀에 항상 열려 귀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토라 말씀의 지식은 단지 축적해야 할 세상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듣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수렴해야만 하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토라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에 청각 세포들을 통하여 그 소리가 도달하게 하는 것 이상의 뜻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자신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영적으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랍비 하니나 바르 파파(R' Chanina bar Pappa)는 여호와와의 토라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돌려버리는 사람은 그 자신의 기도조차도 엘로힘 보시기에 불쾌한 것이 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영적 세계의 능력의 원리는 잠언 28 장 9 절에 명료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대고 [여호와와의]토라를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마하랄(Maharal)은 이렇게 꼭 짚어서 표현해야만 되는 심각성에 주목합니다. 왜 그런 사람의 기도를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은 기도 그 자체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건강, 음식, 생계, 보호, 가족,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여호와께 의존하는 것 자체가 '테필라(tefillah, 기도)'의 위대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할때에 물질적인 것들은 그 자체로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으로 창조된 목적—즉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완전한 계명(mitzvot)을 준행하며, 토라 말씀을 일점 일획도 놓치지 않고 낱알이 공부하며, 여호와와 "의"인 계명들을 실천하며,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마하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현인들 또한 그러한 기도에 대해 엄격하게 말합니다(에루빈 64a). 술 취함은 신체와 정신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일시적으로 얻갈리게 하고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은 물리적인 부족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과 필요하다고 느끼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감성의 열정은 지혜의 영에 의해 다스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농축된 내면의 열정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더 숭고한 목적을 향하도록 의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에 근거한 지각력이 감성에 술취함으로 압도될 때, 그 사람의 영은 그 순간 육신적 갈망의 상태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기도는 더 이상 그것이 비롯된 물질적 영역을 올바르게 초월하여 넘어설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중요한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밝혀 줍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물리적인 것을 간구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고, 그러한 모든 물리적인 것들이 어떠한 궁극적 목적을 위하여 쓰이게 되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샬롬.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사. 66:1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 6:7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 6:31-32